



이국노 회장(오른쪽에서 세번째)과 북한측 담당자들과 사업예정 부지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 페플라스틱 대북송출 협의를 위한 방북

**협회** 이국노 회장을 비롯한 신진문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박훈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부회장 및 협회 나근배 전무 등 방북단은 북한 조선자원재생총회사의 초청으로 페플라스틱의 대북 송출을 위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8월23일부터 26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였다.

방북단은 북한의 광명성총회사 및 조선자원재생총회사 담당자들과 북한측이 추진코자 하는 플라스틱 재활용사업의 타당성여부를 확인하고 관련업무를 협의하였으며, 북한측과 향후 페플라스틱을 공급하기로 의견을 같이하고 합의를 체결하였다.

이번 방북은 중국 베이징로이코(대표 : 마명덕)의 소개로 이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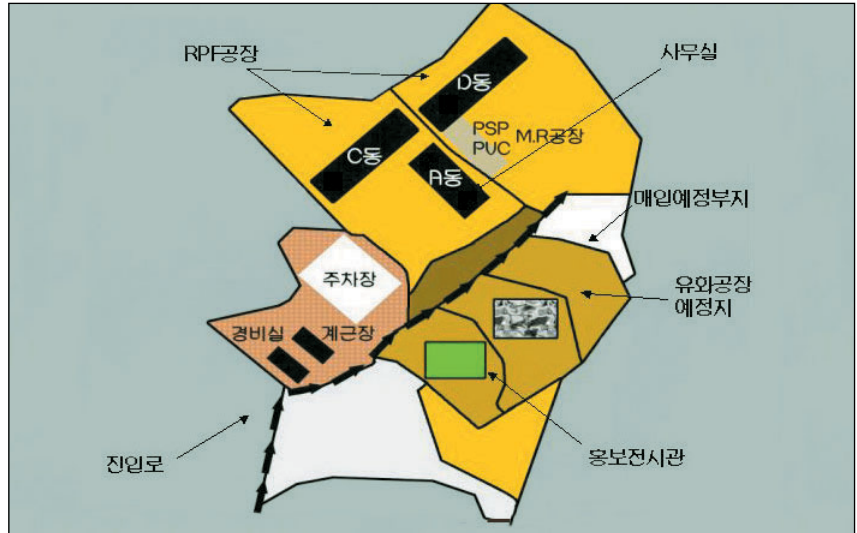
## 페플라스틱 재활용 시범단지 조성

협회가 페플라스틱 재활용시범단지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협회는 지난해 12월 20억원을 투자해 플라스틱 폐기물을 대체연료로 가공하는 고�형화연료(RPF) 생산공장(KRS)을 경기도 안성에 준공한데 이어 올해 중에 유화시범공장 착공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부지를 추가로 확보한데 이어 시범단지조성을 위한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마련 중에 있다.

협회는 지난 9월 5일 안성 KRS공장을 방문한 한명숙 환경부장관에게 고�형연료화 및 유화시범사업의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정부측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

하였다. 시범단지에 현재 가동중인 연간 6,000톤 규모의 고품화연료 생산 공장을 비롯하여 금년 내에 착공하게 될 유화시범공장, 재생원료공장, 대국민홍보를 위한 홍보전시관 등이 건립되게 되면 명실상부한 국내 최초의 폐플라스틱 재활용시범단지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이 자리에서 이 회장은 '협회는 안성의 기존 고품연료화공장에 이어 유화공장 건설과 홍보관 건립 등을 통해 국내 플라스틱 재활용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한단계 높이겠다'고 밝혔다.



시범단지 구성조감도

## 플라스틱리사이클링협회를 상징하는 심볼마크 제작



국문 좌우조합

 (사)한국플라스틱리사이클링협회

영문 좌우조합

 Korea Plastic Recycling Corporation

국영문 좌우조합

 (사)한국플라스틱리사이클링협회  
Korea Plastic Recycling Corporation

협회는 EPR제도의 조기정착과 재활용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활동의 강화를 위하여 협회를 상징할 심볼마크와 로고를 제작하였다.

(사)한국플라스틱리사이클링협회의 심볼(Corporate Symbol)은 (사)한국플라스틱리사이클링협회의 코퍼레이트커뮤니케이션 컨셉(Corporate Communication Concept)을 포괄적으로 상징하는 최고의 시각매체로 C. I. S.(Corporate Identification Standards)중 가장 중요한 기본 요소이다. 협회의 이미지와 비전을 중후한 색과 움직이는 듯한 회전 모양으로 표현 했으며 둥근모양의 화살표 형상으로 플라스틱리사이클링이 부각되도록 디자인하였다.

녹색은 플라스틱리사이클링협회를, 적색은 재활용의무 생산자를, 군청색은 재활용업체를 의미하며 협회의 응집된 조직력과 미래 지향적인 협회 활동을 표현했으며, 재활용의 생산·소비·리사이클링의 연결 내용을 고리형 식으로 표현했다.

아울러 녹색, 적색, 군청의 3색은 국제적인 교류를 위해 가장 한국적인 색감과 느낌이 나도록 태극문양과 색동색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색상을 선택하였다.